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미국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및 정신건강(트라우마) 서비스 제공체계 조사

☐ 과제명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방안 연구

☐ 출장기간

- 2019. 4. 15.(월) ~ 2019. 4. 21.(일)

☐ 출장국가(도시)

- 미국(뉴욕)

☐ 출장자

- 채수미 부연구위원, 차미란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4.15.	미국(뉴욕)			출국 및 이동
4.16.	미국(뉴욕)	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Sungwoo Lim	미국 내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정책방향
4.16.	미국(뉴욕)	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Mark Farfel, Robert Brackbill, James Cone, Liza Friedman	WTC 건강프로그램 및 Health Registry 구축 현황 및 연구결과 조사
4.17.	미국(뉴욕)	Community Access Crisis Respite Center	Lauren D'Iselt, Tim Nugent	Respite Center 운영 및 제공체계 검토
4.17.	미국(뉴욕)	NYU WTC Health Program Clinical Center of Excellence	Tricia Cuarin, Denise Harrison, Mark Evces, Lin Luo, Andrea	WTC 건강프로그램 제공 현황 및 프로그램의 특징 파악

			Thompson, Susan Richman	
4.18.	미국(뉴욕)	Creedmoor Psychiatric Center, The Living Museum	Janos Marton	Living Museum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 검토
4.18.	미국(뉴욕)	The Jewish Board Pride Of Judea Community Services	Susan Heckler, Risa Teamans, Lucinda Hotchkiss	미국 지역사회 내 트라우마 환자 치료과정 및 Trauma informed care 적용 사례 검토
4.19.	미국(뉴욕)	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Meagan Van Hart, Jongjin Jo, Youngim Park, Ival Janelle Grant-Williams, Chae No, Anderson Jacob, Jian Liu, Rosa Pico	정신건강 인지 향상 및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Mental Health First Aid 제공 현황 및 프로그램 특성 파악
4.20.	미국(뉴욕)			출국 및 이동
4.21.	한국(인천)			입국

①	미국 내 트라우마 관련 연구 및 정책방향
일 시	4. 16.(화) 14:00~15:30
장 소	뉴욕(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손해인(NYC's Children's center), Sungwoo Lim(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 NYC Health 개요 ○ 6천명이 근무하는 뉴욕시내 큰 정부조직임. 연구파트는 2002년부터 생겼으며, NYC Health에서 뉴욕 시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협업함. □ 정신질환 관련 연구 진행 내용 및 자살시도 관련 정보 수집 ○ 뉴욕시에서는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는 Housing Program을 진행하며, 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전반적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뉴욕시민들의 경우, 2005년부터 응급실 방문 환자, 입원병동 환자의 자료를 뉴욕시 시스템에 환자의 정보 전송이 필수적으로 되면서 이 정보를 이용한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자살시도 환자 등 자살과 관련된 환자의 정보를 별도의 체계로 수집하고 있음. - 그 중 하나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뉴욕 시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영향을 연구하고 있음. ○ 자살시도의 경우 중독센터의 전화상담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자살시도자들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단, 약물을 통한 자살시도의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함. ○ 또한, 병원데이터, 메이케이드 자료 등을 통해 자살시도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가능함. □ 트라우마 관련 논의 내용 ○ 1960년 베트남 참전용사 트라우마, 1970년대 여성 성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1980년대 비만클리닉에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자의 이전 경험에 대해 물어보니 성학대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트라우마 경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 ○ 중산층 이상의 성인들이 어린시절 트라우마 경험(학대와 방임)이 많았고, 현재 성인의 증상만을 보고 치료하기 보다는 이전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생겨났음. ○ 이것이 trauma-informed care 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현재 미국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전에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물어보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음.	



회의 진행 장면

②	WTC 건강프로그램 및 Health Registry 구축 현황 및 연구결과 조사
일 시	4. 16.(화) 16:00~18:00
장 소	뉴욕(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손해인(NYC' s Children' s center), 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 Mark Farfel, Robert Brackbill, James Cone, Liza Friedman

□ 프로그램 개요

- 911 테러 피해자로 당시 구조 인력이나 자원봉사자, 주변 건물에서 일하던 직원, 보행자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위하여 Health Registry를 운영하고 있음.
- 71,73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축하였으며, 매년 3~4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설문조사와 함께 행정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하거나, 대상자 중 일부 집단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WTC Health Program에서 대상으로 하는 질환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음.

□ 프로그램 대상 질환 리스트 관련

- 피해자의 질환이 프로그램 대상 질환 리스트에 없으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음.
 - 질환군은 크게 정신건강, 신체건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화기, 호흡기계 질환, 암 등의 질환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암의 경우 50개의 암질환을 포함하고 있는데, 희귀암이 주로 포함됨..
 - 많은 암질환을 포함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라는 보다는 인도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고 있음.
 - 비노출군과 비교하여서 위험도가 높은 질환들을 연구를 통해서 추가를 계속 하고 있음.
 - 단순히 환자의 수가 많아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연구결과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전문가 집단에서 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대상질환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피해자 호소 질환

-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PTSD, 우울, 천식,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있으며 이 질환들과 함께 동반 증상들을 가지고 있음.
 - 동반되는 증상들은 낮아진 삶의 질과 신체기능, 의료서비스 요구 불충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임.
- 9/11 노출로 인한 다른 문제들로는 심장질환, 뇌졸중, 청력손실, 흡연, 과음, 건강문제로 인한 이른 은퇴, 청소년 행동장애 등이 있음.

〈표 1〉 WTC Health Registry 조사 개요

	조사시기		조사 참여인원	참여비율	조사방법
1차 조사	2003. 9. 3. ~ 2004. 11. 20.		71,437명 (총 Health Registry 등록자)	구조/복구 참여자 (30,665명) 거주자(12,654명) 학생/교직원 (1,736명) 목격자 (26,382명)	전화(94.5%) 면접(5.5%)
2차 조사	성인	2006. 11. ~ 2007. 9.	46,602명	참여가능 등록자 68,959명의 67.58%	우편(46.2%) 전화(12.1%) 온라인(41.7%)
	아동	2006. 6. ~ 2008. 1.	1,022명	참여가능 등록자의 2,030명의 50 %	편지(100%)
3차 조사	2011. 6. 20. ~ 2012. 3. 18.		43,135명	참여 가능한 등록자 68,030명중 63.4%	온라인(44.6%) 우편(40.6%) 전화(14.8%)
4차 조사	성인	2015. 3. 20. ~ 2016. 1. 31.	36,348명	참여 가능한 등록자 67,503명중 53.8%	온라인(50.4%) 우편(49.6%)
	천식 환자	2015. 9. 3. ~ 2016. 3. 20.	8,482명	1-3차 동안 천식진단을 받은 자 14,983명중 56.6%	온라인(54.9%) 우편(45.1%)



회의 진행 장면

③	Respite Program 운영 및 제공체계 검토
일 시	4. 17. (수) 10:00~12:00
장 소	뉴욕(Community Access Crisis Respite Center)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손해인(NYC' s Children' s center), Lauren D'lselt(Community Access), Tim Nugent(Community Access)

□ 프로그램 개요

-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 의사의 의뢰서를 받는 경우에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동료 전문가(peer staff)들과 함께 7일 동안 센터에서 머무르면서 지낼 수 있음.
 -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외래병원 치료, Respite Center 이용, 입원치료 등의 선택 사항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비싼 입원비용 대신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동료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어서, 이들이 센터에 오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이용자는 7일 이용 후에 일반 외래 클리닉으로 필요한 경우 연계되기도 함.
-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일부 대상자는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외래 정신과 환자들이 연계 되서 오는 경우가 많음. 주거 환경이나 스트레스적 환경 요인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의뢰가 들어오게 됨.

□ 이용자의 특성

- 자해나 타해의 위험을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자들은 증상이 심하더라도 수용하고 있음. 그 들은 어디에서나 거부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함.
- 병원에서 의뢰를 할 때 담당 의사가 자살과 타해의 위험이 없고, 센터에 머무르기에 안전하다는 소견을 써주어야 올 수 있음. 또한 소견서를 받더라도 센터 직원들이 전화로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상태를 알 수 있음. 할을 해주면서 이용자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프로그램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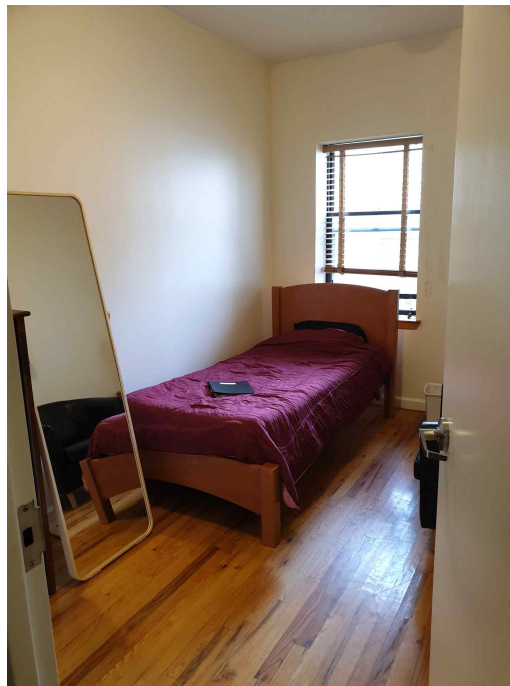
- 센터에서는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진단명으로 환자를 판단하지 않음.
 - 현재 그 사람이 힘든 점을 이야기 하게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센터에 오는 이용자들이 대가족 내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료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용자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동료전문가가 구성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원하는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센터에 지내면서 각자 직장을 나가거나 불일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내다가도 저녁은 꼭 같이 먹도록 권유하고 있음.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치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게 하도록 하고 있음. 이용자들이 함께 밥을 먹는 존재가 있고, 공동체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음.
- 이용자 퇴소 후 30일까지는 전화로 상태를 체크하고 있음.



공동 식사공간



공동 주방



이용자 방

④	WTC Health Prgram 제공 현황 및 프로그램의 특징 파악
일 시	4. 17. (수) 15:00~18:00
장 소	뉴욕(NYU WTC Health Program Clinical Center of Excellence)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손해인(NYC' s Children' s center), NYU WTC Health Program Clinical Center of Excellence - Denise Harrison, Tricia Cuarin, Mark Evces, Lin Luo, Andrea Thompson, Susan Richman

□ 프로그램 개요

- 자드로가 법안에 기반하여 CDC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건강검진, 치료를 수행하고 있음.
- 9/11 참사 당시 구조작업이나 복구일에 참여하였거나 봉사활동을 참여하였는지 여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참사 당시 그 지역을 지나갔거나 그 지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증명이 될 경우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음.
 - 대상자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음.
 - FDNY(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뉴욕소방국) Responder
 - General Responder(소방국 외 경찰, 응급실 직원, 청소부, 엔지니어 등을 포함)
 - 뉴욕시 생존자
 - Pentagon/Shanksville, PA Responder(소방국, 경찰, 복구 및 청소 작업자, 자원봉사자)
 - 현재까지 총 93,028명의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음.

□ NYU WTC Health Program Clinical Center of Excellence의 시작

- 당시 구조사(Responder)들의 요구에 따라 건강상태를 스크리닝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진행되었음.
- 뉴욕 대학 병원에 직업의학 전공의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구조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구조사들이 뉴욕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주 지역은 다 다르기 때문에 NYU외에도 서로 다른 지역에 4개의 센터가 더 운영되고 있음.

□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로 진행되는 신체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4~6시간에 걸친 심도 있는 건강검진)
 - 구조사나 복구 작업 참여자, 당시 자원봉사자의 경우, 겪고 있는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근거기반 연구결과에 따라 9/11 노출과 연관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상 치료와 약물처방,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주호소 질환

- 가장 흔한 질환의 경우, 만성 부비동염, 위식도 역류성 질환, 천식, 불면, 암, PTSD, 만성호흡기질환, 우울, 불안 장애임.
- 구조사들과 생존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종류는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음. 다만, 생존자 그룹에는 여성이 많아서 유방암이 많이 나옴. 전체 인원수로는 구조사들의 인원수가 많아서 생존자들 보다는 가지고 있는 질병의 수가 더 많은 편임.

□ 서비스 내용 및 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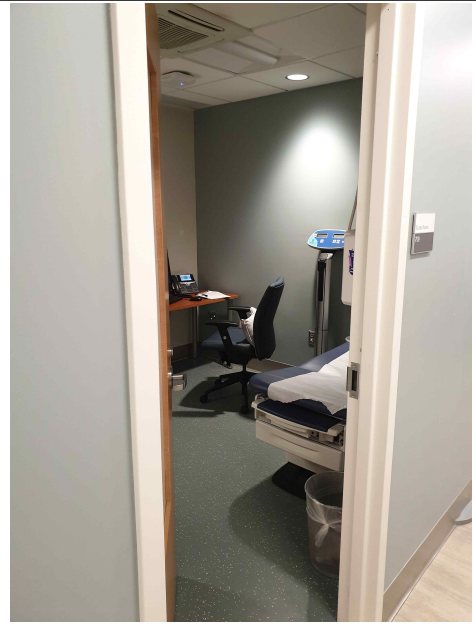
- 환자 중심의 케어를 제공하고자 하며, out reach 서비스, 서비스의 조정, case management 등을 수행하며, 각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 각 진료과의 전문의와 센터 내 다학제적 인력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하며 협업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신체건강, 정신건강 전문가가 같은 팀 안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다학제간 접근을 하고 있음. 서로 긴밀하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천식 증상이 PTSD 환자도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두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보면서 증상이 어디서부터 된 것인지 알 수 있음.
- case management의 경우, 환자가 원하는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WTC network에 소속된 다른 외래 의료기관을 연결, 의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환자가 치료나 관리를 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역할을 함.
-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권장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모든 대상자가 오는 것은 아님. 그러나 4~6시간에 걸친 총체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어서 대상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검사는 받으려고 함.
- 센터 내 의사들은 직업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기 때문에 다른 전공의 의사들은 이해 못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음.



센터 내부 ①



센터 내부 ②



센터 내부 ③ (검진 공간)

⑤	Living Museum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 검토
일 시	4. 18. (목) 10:30~12:00
장 소	뉴욕(Creedmoor Psychiatric Center, the Living Museum)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Janos Marton(Living Museum)

□ 프로그램 내용 및 특징

- 정신질환자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면 받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자신을 예술활동으로 표현하게 하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관점의 치료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30년 전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곳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임상적인 회복을 보임.
 - 증상완화 등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되면서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도 리빙뮤지엄을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용인정신병원에도 2016년에 설립되었음.
- 리빙뮤지엄 안에 환자가 그림, 설치물, 조각,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료 등을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강요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임.
 - 리빙뮤지엄에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아웃사이드 아트로 인정을 받아 고액의 작품을 판매하는 예술가로 활동하는 환자들도 있음.



작업 및 전시 공간 ①



작업 및 전시 공간 ②

⑥	미국 지역사회 내 트라우마 환자 치료과정 및 Trauma informed care 적용 사례 검토
일 시	4. 18. (목) 15:00~18:00
장 소	뉴욕(The Jewish Board, Pride Of Judea Community Services)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Pride Of Judea Community Services - Susan Heckler, Risa Teamans, Lucinda Hotchkiss

□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서비스 내용

- 성인과 아동 트라우마 환자의 치료를 위해 TFCBT(Trauma Focused CB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주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 트라우마 당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고, 이를 환자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한 것뿐이라는 생각과 감정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임.

□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의견

-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재난 직후 그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
 - 우선적으로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환자를 지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트라우마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음.
-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 각각의 감정의 속도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서비스에 다가오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트라우마는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게 됨을 알려주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환자를 교육(psyc education)하는 것도 중요함.
 - 반드시 심리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환자가 원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트라우마 환자의 동료들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하여서 ‘굿 리스너’로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임.
 - 시민 중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희생자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음.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환자들은 성장할 수 있음.
- 트라우마를 겪은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힐링)되는 것이 트라우마를 겪는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됨.
- 트라우마 환자들이 느끼는 것 중 큰 것이 무력감임. 중재를 제시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여러개를 제시하여서 무력감을 없애고,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또한, 트라우마 상황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트라우마의 증상임을 인지해야 함.
 -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때 너무 빠르게 자신에 대해서 털어놓는 것에 대해서 추후 부끄러움을 느껴 다음 치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하게 하도록 해야 함.
- 환자의 강점과 장점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음. 환자의 역량강화가 중요함.
 - 임상적인 방법 말고 환자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함



센터 내 상담 공간

⑦	정신건강 인지 향상 및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Thrive NYC Mental Health First Aid 제공 현황 및 프로그램 특성 파악
일 시	4. 19. (금) 16:00~18:00
장 소	뉴욕(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참석자	채수미(kihasa), 차미란(kihasa), 손해인(NYC' s Children' s center), NYC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 Meagan Van Hart, Jongjin Jo, Youngim Park, Ival Janelle Grant-Wiliams, Chae No, Anderson Jacob, Jian Liu, Rosa Pico

□ 프로그램 개요

○ Mental Health First Aid는 호주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 2015년부터 미국에서 시행하였으며, Thrive NYC 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 뉴욕시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진 거리감을 좁히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음.

□ 프로그램의 특징

○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용어나 거부감이 드는 단어를 일상적이고 듣기 더 편한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위기상황에서 정신질환자에게 자극되는 말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자칫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피해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나 자살 고위험자를 발견하였을 때 우선 자살의도를 직접적으로 묻고, 자살 의도가 있는 경우 무조건 911로 전화를 한 후 자살고위험자 옆에 있어주도록 교육함.
- 특별한 조치를 안 하더라도 환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911이 올 때까지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역할 정도만 하도록 교육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다른 Thrive NYC 프로그램과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교육 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예, NYC WELL(핫라인 상담전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음.

○ 원하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교회나 직장 등 단체가 모이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구글 등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회사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교육을 신청하고 있어, 미국 내 호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예산을 많이 투자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지역 신문, 공원 등 대중들이 많은 곳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영향력 있는 스타들과 언론을 이용하고, 함께 일하면서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서 가지고 있으며, 약 15만 명의 자료를 가지고 있음. 이 정보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각 나라 언어로 제작된 홍보 카드



홍보 포스터